은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번 말씀에 잠깐 소개한 "사모 영성훈련"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겠다는 사모님들의 고백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니 그것보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아침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큰 기쁨,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들려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요?

"바라본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맥을 놓고 체념한 체 하염없이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어떠하든 지 신뢰를 놓지 않기에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는 "바라봄"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trust = wait) 말입니다. 늘 상 알면서도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기다린다는 것,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한 번 상상하면서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느껴지는 것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지난 해 GT 12월 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개입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정조의 서바이벌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 [이산]에서 정조의 '제 목숨 지키기 프로젝트'는 정말이지 순간순간 너무 처절했다. 오죽했으면 잘 때도 칼을 품고 자야 했을까! 그런 '산'이 어느 날 제대로 곤경에 처한다. 정적들이 친필과 도장을 위조해 산을 모함할 일을 꾸몄는데, 영락없이 뒤집어쓰게 생긴 정황이다. 산의 주장과, 조정 대신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그간 냉정하고 엄하기가 북극 얼음보다 더했던 영조였건만 그는 비로소 '개입'을 한다. 세손 '산'이 스스로 해결하기 히든 큰 사건이란 판단 때문이었으리라. 그 모두를 불러 놓은 자리에서 영조는 친히 인장 위조 방법을 선보이며 위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산'을 향한 할아버지의 신뢰와 깊은 사랑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서 난 '꼭 필요할 때만 관여하는' 큰 사랑을 보았다. 그 능력을 믿으며 기대하고 곁을 지켜 주는 것, 그러나 당한 어려움이 그 아이의 능력 이상의 것일 때 비로소 관여함으로써 그 아이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크고 깊은 사랑이고, 실은 '바른'사랑이지 싶다.
문득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그것으로 비유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소소한 일들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아이 같은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은 크고 깊은 사랑으로 늘 지켜보시며 스스로 이겨내며 자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이 내 능력 이상일 때는 결국 직접 관여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 고백에 이르니 비로소 세상살이가 조금은 만만해 보인다. 내 바로 뒤에 무한히 크고 무한히 강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 눈동자 같이 날 지키고 있기에, '개입할 때를 아는 큰 사랑'으로 그리 버티고 있기에. . . 난 그저 '지금, 여기' 에서의 당면한 과제들을 맞으며 성실히, 충실히 내 몫을 해내면 되는 거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당할 때 개입해 주실 그 큰 분을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 .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멋진 구절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함 없이 "잠잠히"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는 것 말고, 남들이 다 알게 사랑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 ."

영성훈련을 시작하는 첫날 제가 처음 한 말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것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누군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지 알아 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떤 수치로도 보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X2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혹시 우리들이 율법가운데 살면서 “너의 행위가 나아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가 진정으로 나아질 때까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에스겔 36장 26-7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쉬운성경).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자격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
단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에 차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실까?”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지은 죄 중에 몇 개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숫자를 따지고, 그 진실을 다 캐려한다면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할 뿐입니다 .

참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버전인데요. .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하는 줄 몰랐고, 거북이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해보지 않을래?"
그날따라 거북이는 투지가 생겼습니다. 질 때는 지더라도 토끼와 같이 달려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토끼는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어떡하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그런데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토끼는 길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같이 나란히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 옆을 지나면서도 자기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 하던 토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주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가 토끼의 그 사랑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승리의 기쁨보다 더 감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혼자 눈물짓는 그 사랑이 훨씬 위대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안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조금은 어렵기도하고,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 2.5단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말고, 관계를 갖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순간이 모두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던 때였죠.

그 때 헤셀의 책이 좋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참 큰 축복이겠다!
도리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은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셀은 그의 책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안식일은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이다.

-> "일곱째 날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일시적으로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에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사람이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안식일에 돈을 쓰지 않고, 돈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지 안식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과 갈등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노동은 생존을 위한 싸움과 갈등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섯 날 동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던 삶, 경쟁, 다툼, 싸움이 안식일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안식일에는 논쟁의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된다.

->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시간을 매혹, 은총, 평화, 사랑 속에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지옥에 있는 악인조차 평화를 얻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화를 내는 것은 죄를 갑절로 짓는 것이다."

우리는 여섯 날 동안 매일같이 고군분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작게는 내 삶에서, 크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크게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와 화가 있습니까?(수많은 범죄를 보도하는 뉴스, 사회적 불평등의 예 등->목사님께서 최근에 보신

뉴스, 혹은 논쟁거리가 있다면 함께 언급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지옥에 있는 악인조차 평화를 얻습니다. 내 삶을, 이 세상을 불안정하게 흔드는 것들을 제쳐두고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3)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며,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날이다.

->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한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위안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향한 무리한 수고도 삼가야한다는 것이 유독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안식일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써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성화하는 것이며, 그 시간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의 유익은 그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미소"가 보인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저자인 스티브 맥베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9년을 자기 성찰을 하는 데 보냈다. 그리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데 한 일을 두고 용서를 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 심지어 단 한 가지도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 나는 철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살았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계속 찡그리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미소 띤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미소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
결혼하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연애 할 때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차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 주고 참 많이 배려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성공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깨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가 부부가 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을 하는 것도, 그 사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한 번 이런 상상을 해 보셨나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오페라를 관람하러 갔다고 한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사랑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불타오르는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6주간의 데이트 후에 청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 남자는 그 여인이 출연하는 모든 오페라를 찾아갔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목소리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첫 날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여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가발을 들어 올리자 대머리나 다름없는 두상이 드러났고, 인조 눈썹을 뗐을 땐 밋밋한 눈꺼풀이 나타났습니다. 컬러 콘택트렌즈도 뺐습니다. 그리고 인조 치아까지 뺐습니다.
남자는 할 말을 잃고 서서 여인을 바라보더니 외쳤습니다. "제발 노래를 해봐요! 노래를!"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실망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치장한 모습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더러운 모습이 드러났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바라보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믿음 좋은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목사님을 찾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알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지?" 하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예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계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랑의 순서가 무의미 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시간에 우리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 .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 .. . . ."